

핸드볼 다시 전승 우승, “이젠 실업팀 이겨보고 싶다”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적수가 없다. 또 전승 우승이다. 지난달 17일, 핸드볼부가 강원도 태백 고원체육관에서 열린 ‘2025 대학핸드볼통합리그’에서 6전 전승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올해 첫 대회부터 전승 우승을 거머쥐고 캠퍼스로 돌아와 휴식기를 보내고 있는 대회 득점왕 나의찬(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주장)와 대회 어시스트 왕 이민준(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에게 우승기를 들어봤다.



각각 GK상, 득점상, 어시스트상을 수상한 김현민(스포츠지도학 2023), 나의찬(스포츠지도학 2022), 이민준(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 (사진 제공=레굴루스)

지난해 핸드볼부는 출전했던 대학부 모든 경기에서 승리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올해 역시 대학 최고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장 나 선수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작년의 전승 우승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느껴졌다”며 “강팀이지만 실수로 인한 패배를 걱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회를 나가기 전 걱정이 무색하게 핸드볼부는 큰 점수 차로 전승했다.

가장 적은 점수 차가 7점 차 승리였을 정도로 막강했다. 하지만 선수들 생각은 달랐다. 점수 차가 가장

적었던 경기보다는 과격한 몸싸움을 버텨낸 경기가 기억에 남았다고 한다. 나 선수는 “점수 차가 가장 적었던 조선대전보다 원광대전이 기억에 남는데, 상대가 초반부터 몸싸움을 강하게 해서 우리가 전반에 흔들렸다”며 “후반에 마음을 다잡고 들어가서 우리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원광대전 전반은 10-9였으나, 후반은 20-9로 압도하며 12점 차 승리를 거뒀다.

우리학교는 지금껏 타 대학보다 월등한 체력으로 상대를 누르는 전

술을 써왔다. 이번 대회는 체력만큼 침착성을 유지하는 게 필요했다. 이 선수는 “이번엔 다른 팀이 우리보다 운동을 더 많이 한 것 같다”며 “어떻게든 우리를 이겨보겠다고 달려드는 팀이 많았는데, 그 분위기에 휘말리지 않고 천천히 재미있게 하자는 게 이번 대회의 전략이었다”고 설명했다.

나 선수는 지난해 함께 전승 우승을 이뤄냈던 하남시청 차혜성(스포츠지도학 2021) 선수, SK호크스 변서준(스포츠지도학 2021) 선수와

같은 선배들의 뒤를 이어 팀을 이끌고 있다. 올해는 선배가 없는 팀에서 전보다 앞에 나서서 좋은 성적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부담은 대회 초반 경기장에서도 드러났다. 나 선수는 “주장으로서 첫 대회라서 책임지고 경기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첫 경기에 실수를 많이 했다”며 “다음 경기부터는 하던 대로 하면서 원래의 경기력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돌아봤다.

지는 상황에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위닝 멘탈리티’ 역시 이번 우승 비결이었다. 이 선수는 “지난해 전승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이 올해도 함께 하고 있어 상대보다 우리 선수의 호흡이 더 좋다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입생 5명도 전부 뛰어난 선수들”이라며 칭찬했다.

그렇게 나 선수는 대회 득점왕을, 이 선수는 어시스트왕을 차지했다. 나 선수는 “팀원들과 코치, 감독 선생님께 감사하다”며 “동료들이 ‘의찬이 형 몰아줘라, 득점하게 해주자’고 말하며 많이 도와줘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 선수는 “상을 많이 받아봤는데 어시스트상만 없었다”며 “도와준 동료들 덕분에 받게 되

어 기쁘다”고 소감을 남겼다.

야구, 축구 등의 종목에 프로리그가 있지만, 핸드볼에는 프로가 아닌 실업리그가 있다. 대학 선수들은 졸업 후 실업리그 진출이 목표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핸드볼부는 실업팀과 경기하게 된다. 대학 무대에서는 항상 강자의 위치지만, 실업팀에는 도전자의 입장이자다.

나 선수는 “4학년까지 여러 경기를 치르면서, 공식전에서는 실업팀을 이겨본 적이 없다”며 “올해는 꼭 이겨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선수는 “상대가 강하다고 무조건 진다는 생각은 없고, 꼭 이기고 싶기에 한 번 달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두 선수 모두 대회 전승 우승과 실업팀 상대 승리를 목표하는 동시에, 성적 외의 가치도 챙기고 싶은 마음이다. 이 선수는 “지금 이 멤버가 나중에도 추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고, 경기에 지더라도 재밌었다고 기억할 수 있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 선수는 “민준이와 같은 마음이고, 실업팀을 상대로 딱 1승이라도 꼭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5세트 역전극, 배구부 홈경기 첫 승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국제】우리학교 배구부가 지난 9일, 국제캠 선승관에서 열린 ‘2025 KUSF 대학배구 U-리그’ 중부대와의 홈경기를 세트스코어 3-2로 승리했다. 시즌 첫 홈경기 승리다. 배구부는 3경기에서 2승 1패를 기록해 승점 5점으로 남자부 A조 7팀 중 4위에 위치한다.

우리학교는 1세트를 내줬지만, 2세트와 3세트를 잡아냈다. 4세트 패배 이후 마지막 5세트에 돌입했고, 13-14의 패배 위기에서 아포짓 스파이커 염시원(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의 득점으로 경기를 듀스로 끌고 갔다.

염 선수는 14-14에서 블로킹 득점과 스파이크 득점을 연이어 성공시켜 극적인 승리를 이끌었다.

승리 요인은 염 선수의 37득점이었다. 공격 시도 46회 중 30회 성공, 서브 득점 5회 등 뛰어난 활약이었다. 3세트를 서브에이스로 마무리했고, 5세트 연속 3득점으로 경기를



지난 9일, 배구부가 중부대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3-2로 극적인 시즌 첫 홈경기 승리를 거뒀다.

(사진 제공=배구부 프런트 쿠볼리)

가져왔다. 경기 후 염 선수는 “신기하게 경기가 잘 풀렸다”며 “블로킹 하나만 하자, 스파이크 하나만 잘

패리자’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전부 현실이 됐다”고 웃었다.

올해부터 배구부 감독을 맡게 된

이행 감독은 “부상이 많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를 가져온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소감을 남겼다.

이어 “시원이가 경기 경험이 많지 않은데, 잠재력을 보여준 게 승리로 이어졌다”고 칭찬했다.

현재 배구부는 부상자가 많다. 이 감독은 “마윤서(스포츠지도학 2022), 김영태(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가 곧 프로 진출을 위한 드래프트에 나가야 하는데 다쳐서 아쉽다”며 “앞으로 부상 관리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구부는 지난해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다. U-리그 외에도 오는 6월 전국대학배구 고성대회, 7월 단양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 감독은 “U-리그에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 여름에 열리는 대회는 결승까지 꼭 올라가 보고 싶다”고 밝혔다.

다음 경기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선승관에서 열리는 성균관대와의 경기다. 지난해 플레이오프 3위까지 올랐던 강팀이다. 염 선수는 “오후 2시 경기라 바쁘시겠지만, 많이 와주신다면 시간이 아깝지 않게 정말 열심히 할 테니, 응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